조용히 칼 가는 김태형 "KS엔트리 두 곳이 변수"


두산 김태형 감독

정규시즌 우승(88승 1무55패)을 차지하며 한국시리즈(KS·7전 4선승제)에 선착한 두산 베어스 선수단이 조용히 칼을 갈고 있다.

약 1주일 앞으로 다가온 KS를 대비해 야수들은 다양한 수비 포메이션을 복습하고 타격감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고, 투수들은 캐치볼과 불펜피칭을 하며 컨디션을 점검했다. 13일 잠실구장에서 훈련을 지켜본 두산 김태형 감독(52)은 "정규시즌을 마친 첫 주에는 시간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가니 금방이다"고 웃었다. 조성환 수비코치는 "지금은 실전 감각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규시즌 막판 무릎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캡틴' 오재원(35)도 문제없이 KS를 준비하고 있다. 큰 경기 경험이 많은 그의 관록은 두산에 꼭 필요한 요소다. 김 감독은 "(오재원은) 100%다. 상대 투수 유형에 따라 수비를 강화해야 할 때가 있다.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 감독은 PO 출장자 명단이 나오자 잠시 시선을 고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엔트리는 두 자리 정도를 고민 중"이라며 "KS에 진출하는 상대팀에 따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잠실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백의종군 선언한 민병헌


민병헌

"민뱅! 감회가 새롭다."

야구국가대표팀 김경문 감독이 두산 베어스 시절 제자였던 민병헌(32·롯데 자이언츠)에게 건넨 말이다. 처음 입단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국가대표 선수로 훌쩍 자란 것을 보고 세월이 지났음을 느꼈다.

실제로 민병헌은 소속팀은 물론이고 대표팀의 핵심 자원이다. 2014인천 아시안게임(AG)을 시작으로 2015프리미어12, 2017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등 최근의 굵직한 국제대회에 모두 나섰다. 쌓인 경험만큼 위치도 높아졌다. 이번 대표팀의 최고참은 2005년 입단한 박병호(33·키움 히어로즈)와 최정(32·SK 와이번스)이다. 그 다음이 민병헌, 양의지, 차우찬, 김현수 등 2006년 입단 동기들이다. 민병헌이 어느새 대표팀의 '넘버2'가 된 것이다.

대표팀 훈련이 진행되는 수원에서 만난 그는 13일 "확실히 내 동기들이 야구를 잘 한다"고 너스레를 떤 뒤 "친구들이 많아 소통도 잘 된다. 우리가 주축이 된 것 같다. 후배들을 잘 이끄는 게 역할이다. 긴장한 후배들을 옆에서 잘 돕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국제대회는 선수들이 알아서 잘 하게 된다. 결국 누가 더 컨디션을 잘 맞추고, 집중하느냐의 싸움"이라며 "주전 욕심보다는 내 역할에 충실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수원 | 최익래 기자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SWOT 분석을 통해 본 SK vs 키움 PO 리턴매치

리그 최고 선발진이냐, 시한폭탄 '박뱅'이냐

〈SK선발 : 김광현·산체스·소사·박종훈〉 〈키움 4번타자 박병호 : 준PO 홈런 3방·OPS 1.146〉

1년 만에 SK 와이번스와 키움 히어로즈가 다시 플레이오프(PO)에서 만났다. 지난해에는 5차전까지 이어진 치열한 명승부 끝에 SK가 3승2패로 한국시리즈(KS)에 진출한 뒤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업셋'에 성공하며 우승 기쁨을 누렸다. 사령탑에도 변화가 있다. SK는 지난해 트레이 힐만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지만, 올해는 지난해 단장이던 염경엽 감독이 팀을 지휘한다. 키움은 장정석 감독 그대로다. 더구나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두 팀 전력 모두 큰 변화가 있었다. 외부 환경도 달라졌다. SWOT분석을 통해 PO승부를 전망한다.

SK ▶

하재훈·소사 구위 회복 중요
유격수·2루수 많은 실책 부담

◀ 키움

김하성·이정후 빠른 발 위협적
2,3선발의 컨디션 중요한 변수

●SK

①강점(Strength)-선발진

선발진은 리그 최강이다. 김광현~앙헬 산체스~헨리 소사~박종훈으로 이어지는 1~4선발진은 단기전에서 분명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카드다. 산체스는 지난해 불펜으로 기용돼 KS 우승에 큰 공을 세웠다. 올해는 11승 평균자책점(ERA) 3.88을 기록한 5선발 문승원이 불펜에 투입된다.

②약점(Weakness)-내야 수비

SK의 가장 큰 약점은 내야 수비다. 주전 유격수 김성현은 14년차 베테랑으로 1군에서만 1007경기를 뛰었다. KS 우승 경험도 있다. 그러나 수비 범위와 안정감 모두 정상급은 아니다. 올해 26개의 실책을 기록했다.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하며 저돌적으로 수비하는 키움 유격수 김하성의 실책이 20개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1차전 선발 김광현의 땅볼/뜬공 비율이 1.31로 리그평균 0.98보다 훨씬 높다. 2루수도 안정적이지 않다. 올 시즌 무려 9명이 2루에 기용됐다.

③기회(Opportunity)

SK 전력 중 올해 가장 크게 발전한 부분은 불펜이다. 지난해는 팀 최다 16세이브를 기록한 신재웅이 마무리 역할을 맡았다. 불펜 전력이 약점으로 꼽혔던 팀이었지만 올해 하재훈이라는 강력한 마무리 투수를 발굴했다. ERA 1.98, 36세이브로 9회를 책임졌다. 서진용, 김태훈이 맡고 있는 7·8회도 든든하다

④위협(Threat)-소사와 하재훈

역설적으로 PO에서 가장 큰 위협은 가장 큰 강점인 선발과 불펜이다. 페넌트레이스 도중 영입된 3선발 소사는 시즌 중반부터 급격한 구위 저하를 보였다. 소사에게 휴식을 주기 시작한 시점부터 팀도 패배가 잦았고, 결국 두산에 페넌트레이스 역전을 허용했다. 하재훈 역시 시즌 초 히트를 친 시속 150km 이상의 강속구가 9월 사라졌다. 시즌 평균 패스트볼 구속은 146km까지 낮아졌다. 시즌 종료 후 약 2주간 얼마만큼 체력을 회복했는지가 큰 관건이다. 또한 새 공인구로 팀 홈런 숫자가 233개에서 117개로 줄어든 점은 큰 위협이다. 단기전에서 SK의 가장 큰 무기였던 홈런공장은 더 이상 없다. 염경엽 감독에게는 전임자 힐만 감독과는 전혀 다른 공식이 필요하다.

●키움

①강점(Strength)-박병호

에이스 투수도 선발이라면 단기전에서 역할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최고의 타자는 시리즈 내내 경기 당 4차례 안팎 타석에 설 수 있다. 수비까지 최고라면 이보다 좋을 수 없다. 키움 4번 박병호는 준PO 4경기에서 OPS 1.146을 기록했다. 결정적 홈런 3방으로 팀을 PO로 이끌었다. 1루 수비도 눈부시다. 키움 투수들은 박병호를 믿고 '견제는 견제로 끝나야 한다' 말을 지키지 않고 있다. 1루 주자를 잡으려고 낮고 강하게 견제구를 던진다. 박병호가 있어 키움의 1루는 4번타자 자리만큼 든든하다.

②약점(Weakness)-2·3선발

선발진의 기록만 보면 키움의 준PO 승리에 장정석 감독, 브랜든 나이트 투수 코치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믿었던 최원태가 무너진 4차전 무려 9명의 구원 투수가 투입됐다. 에릭 요키시가 흔들린 2차전도 불펜 8명이 연이어 마운드에 올라 역전승을 이끌었다. 불펜 총력전이 큰 효과를 봤지만 PO 내내 이런 경기를 할 수는 없다. 요키시와 최원태의 부진이 이어진다면 불펜이 감당해야 할 짐이 더 무거워진다.

③기회(Opportunity)-기동력

SK의 시즌 도루 저지율은 0.223이다. 리그 10위다. 키움의 0.326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키움 장정석 감독은 단기전에서 더 대담해진다. 준PO 1차전에서 도루에 실패한 김하성의 그린라이트를 끄지 않았다. 키움에는 빠른 주자가 즐비하다. 지난해 PO에서 뛰지 못했던 이정후의 존재도 든든하다. 1~3번 어디에 배치해도 부족함이 없다. 키움은 SK의 배터리를 흔들 수 있는 빠른 발을 갖췄다.

④위협(Threat)-불펜 추격조

올해 포스트시즌에서 장정석 감독은 불펜 추격조를 적극적으로 기용하며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준PO 2·4차전 승리는 윤영삼, 이영준, 김동준, 김성민 등 추격주 투수들의 활약이 컸다. 그러나 야구는 실패의 확률을 줄여가야 이길 수 있다. 매 경기 추격조에게 호투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장정석 감독은 한 박자 빠른 교체와 최대한 짧은 이닝 투구로 개개인의 투구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고 있다. 과감하고 훌륭한 전술이지만 그만큼의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수원에 모인 야구국가대표팀.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에 나설 대표 선수들이 13일 수원KT위즈파크에서 훈련 도중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수원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실전 감각 유지·동기부여 '김경문호의 숙제'

'프리미어12' 소집훈련 첫 일정 소화

시즌 종료 후 떨어진 감각 살려야
PS 치른 선수들 마음가짐도 중요

'김경문호 2기'의 소집훈련 첫 일정이 끝났다. 최소 144경기 장기 레이스부터 최장 한국시리즈(KS)까지 치열한 일정을 소화한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야구대표팀은 11일부터 13일까지 수원KT위즈파크에서 소집훈련 첫 턴을 소화했다. 3일 훈련 후 하루 휴식의 일정으로 오는 11월 개막하는 프리미어12를 준비한다. 이번 일정에는 포스트시즌(PS) 진출에 실패한 6위부터 10위 팀 선수들에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패한 NC 다이노스 선수까지만 소집됐다. 총 아홉 명으로 제대로 된 훈련이 힘들었고, 최소한의 타격 등 컨디션 회복에만 초점을 맞췄다. 준플레이오프(준PO)에서 패한 LG 트윈스의 김현수, 차우찬, 고우석 등은 15일 훈련부터 합류 예정이다. 정민철 한화 이글스 단장이 맡았던 역할을 대신할 최일언 LG 투수코치도 함께 합류한다.

13일 훈련을 마친 김경문 감독은 "정규시즌 종료 후 열흘 정도가 지났다. 아무래도 몸이 무거울 텐데, 그래도 야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모인 곳 아닌가. 전부 잘 치더라. 역시 좋은 선수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LG 선수들이 다음 훈련부터 참가한다. 열 명을 넘어가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세 번째 턴부터는 성균관대 투수 세 명을 초대해 라이브 배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감독은 2008베이징 올림픽 야구 금메달을 이끌며 '한국 야구의 영웅'이 됐다. 당시에는 정규시즌이 한창이었던 8월에 국제대회를 치렀던 반면 이번 프리미어12는 시즌 후 진행된다. 때문에 선수들의 실전 감각이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몸은 물론 마음의 추스름도 관건이다. 김 감독은 "144경기 장기 레이스에 PS까지 치르는 선수들이 많다. 얼마나 에너지들을 쏟았겠나"라고 운을 뗀 뒤 "컨디셔닝만큼 마음가짐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 시즌 후 후련한 기분을 느낀 선수들이다. 여기에 KS 준우승 팀 선수들은 합류 후 허탈감을 떨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원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